

2008. 5. 14.(수) 10:00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國外研修結果報告書

I. 연수개요	1
II. 기관·단체, 유적지 등 연수 내용	
1. 체코(프라하) -프라하 시의회, 프라하 성 견학 등.....	4
2.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 비엔나) - 미라벨 정원, 비엔나 8구의회, 할슈타트, 쓰레기 소각장, 등 견학...	24
3. 폴란드(아우슈비츠, 크라코우) -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금광산 등 견학	44
4. 슬로바키아(타트라) - 타트라 국립공원 견학 등	51
5. 헝가리(부다페스트) - 영웅광장, 어부의요세, 겔레르트 언덕, 중앙시장 등 견학	53
III. 맺 는 말	62

居 昌 郡 議 會

[총무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제 5대 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국제적 경험 축적으로 의원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
- 동유럽 5개국(체코,오스트리아,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적을 답사, 선진문화 체험과 고대문명의 유적지, 유물의 보존관리실태 등을 견학
-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운영 및 관광자원개발 등의 관리 현황 및 이용실태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연수기간

- 2008. 2. 18(월) ~ 2. 28(목) [10박 11일]
- 출국 : 2. 18(월) 14:35
- 인천 ⇒ 체코 [프라하]
- 귀국 : 2. 28(목) 12:35
- 오스트리아(비엔나) ⇒ 인천

3. 연수단(9명)

- 의 원 : 5명 (총무위원회 신주범 위원장 외 4)
- 공무원 : 4명 (의회사무과장 외 3)
- 연수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의 장	신 현 기	거창군 가북면	
총무위원장	신 주 범	거창군 가조면	
의 원	안 철 우	거창군 거창읍	
의 원	이 현 영	거창군 웅양면	
의 원	임 종 귀	거창군 위천면	
의회사무과장	송 재 명	거창군 거창읍	
사회복지과장	정 삼 영	거창군 거창읍	
전문위원	강 국 희	거창군 위천면	
행정7급	송 철 주	거창군 거창읍	

4. 연수 기관 · 단체 및 일정

- 연수지역 : 5개국(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헝가리)
 - 체코(프라하, 체스키크룸로프) : 프라하 시의회, 프라하성, 구시가 광장, 황금소로, 체스키크룸로프 등
 - 오스트리아(잘스브르그, 비엔나) : 미라벨 정원, 잘츠카머굿, 할슈타트, 할슈타트 오물처리장(비공식), 쉐부른 궁전, 비엔나 8구 구의회 방문, 비엔나 시내 쓰레기 소각장 방문(비공식) 등
 - 폴란드(아우슈비츠, 크라코우) :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금광산 등
 - 슬로바키아(타트라) : 타트라 국립공원 등
 - 헝가리(부다페스트) : 국회의사당, 영웅광장, 어부의 요새, 중앙시장 등

○ 세부 연수일정표(10박 11일)

월 일	출발지 (도착지)	시 간	방문지(기관)	업무수행 (견학)내용	비 고
2.18 (1일차)	인천 공항 인천 → 프라하 (14:35출발 KE 935)	07:30(버스) 14:35~18:05	○ 인천공항 이동, 수속 ○ 인천~프라하 이동	프라하 도착 (18:05)	거창 출발 (07:30)
2.19 (2일차)	프라하 (체코)	09:00~18:00 (전용버스)	○ 프라하 성, 카를교, 견학 등 ○ 프라하 시의회 방문	의회제도 비교견학 유물 관리실태 견학 등	의회 및 시설관계자
2.20 (3일차)	체스키크롬로프 (체코)	09:00~18:00 (전용버스)	○ 체스키크롬로프 구시가지 문화유적 견학 ○ 짤즈부르크 이동(3시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적, 유물 관리실태 견학 등	시설 관계자
2.21 (4일차)	짤즈부르크 (오스트리아)	09:00~19:30 (전용버스)	○ 미라엘정원, 대성당 등 견학 ○ 호엔짤즈부르크성 견학 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적, 유물 관리실태 견학 등	시설관계자
2.22 (5일차)	짤츠캄머굿 이동 (오스트리아)	09:00~18:00 (전용버스)	○ 짤츠캄머굿 및 할슈타트 오수처리장 비공식 견학 ○ 비엔나 이동(1시간 30분)	자연보호 관리 실태 견학	시설 관계자
2.23 (6일차)	비엔나 (오스트리아) 브르노 (체코)	09:00~18:00 (전용버스)	○ 비엔나 8구 구의회 방문 구의회 운영실태 등 ○ 쉐부른궁전, 성 슈테판 견학	문화재 관리실 태 견학	시청 및 시설관계자
2.24 (7일차)	브르노 (체코) 아우슈비츠 (폴란드)	08:00~18:00 (전용버스)	○ 아우슈비츠 수용소 견학 ○ 크라코우 이동(1시간 30분)	유대인 학살현장 견학 및 수용소 시설물 견학 등	시설관계자
2.25 (8일차)	크라코우(폴란드) 타트라 (슬로바키아)	09:00~19:00 (전용버스)	○ 소금광산 견학 ○ 타트라 이동(4시간) 국립공원 견학	폐소금광산 재활용과 국립 공원 관리실태 견학	시설관계자
2.26 (9일차)	부다페스트 (헝가리)	08:00~19:00 (전용버스)	○ 타트라 출발(5시간 30분) ○ 영웅광장, 어부의 요새, 중앙시장 등 견학	문화유적 및 유 물과 시장경제 개방 등 견학	시설관계자
2.27 (10일차)	비엔나 (오스트리아)	08:00~12:00 (전용버스) 18:30~ (기내숙박)	○ 비엔나 시내(쓰레기 소각장, 광장, 공원묘지 등) 견학 ○ 비엔나 출발	문화의 도시 및 관광자원 등 견 학	시설관계자
2.28 (11일차)	비엔나 → 인천 (KE 938)	12:35 18:00(버스)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거창 이동(버스) 도착	거창 도착 (19:50)	

II. 기관·단체, 유적지 등 연수내용

1. 체코(프라하, 체스키크롬로프)

가. 견학 개요

- 견학 일자 : 2008. 2. 18 ~ 2. 20(3일간)
- 견학 대상 : 프라하시 의회, 프라하 성, 성 비트 성당, 황금소로, 카를교, 구 시가 광장, 구 시청사, 틴 성당, 천문시계, 바즐라프 광장, 재래시장, 체스키크롬로프 등 고대 유적지

나. 주요 방문지 및 연수내용

◆ 체코(CesKa)

- 수 도 : 프라하(Praha, 120만명)
 - 인 구 : 약 1천 200만명
 - 면 적 : 78,866km² (한반도의 1/3, 평지:산악 = 7:3)
 - 주요도시 : 프라하(Praha), 브르노, 오스트라바 등
 - 주요민족 : 체코인(90%), 모라비아 및 슬로바키아인(10%)
 - 주요언어 : 체코어(90%),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 독일어(10%)
 - 종 교 : 기독교(50%), 카톨릭(40%), 신교도 및 기타(10%)
-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정식 명칭은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이다. 원래 체코슬로바키아 란 국가로 있다가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하면서 생겼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는 오스트리아의 빈 보다 서쪽에 있어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서구화 된 곳이며 경제적으로도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며 생활 수준도 높은 편이다. 체코는

초원과 호수등의 자연미와 오랜 역사에서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스타일의 고성들이 여행하는데 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유럽 여행의 기점이 되는 곳이다.

- 체코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프라하를 중심으로 한 보헤미아와 브르노를 중심으로 한 모라비아이다.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체코는 1세기부터 켈트인이 거주했으나 로마에 정복된 뒤 5세기에는 슬라브족이 7세기에는 사모국이 8세기 말에는 모라비아 왕국이 들어섰다. 9세기경 체코와 슬로바키아 민족이 통일 국가를 수립 하였으며, 그 뒤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점령 되었고, 10세기에는 보헤미아 왕국으로 변형하여 보헤미아 왕이 폴란드와 헝가리 왕을 겸임하는 등 국력이 강해졌고 14세기에는 카를 4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 오를 정도로 부강해졌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과 함께 일어난 후스파와 교황파의 전쟁으로 16세기에 합스부르크 가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19세기 후반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945년 소련에 의해 해방되어 사회주의가 진행되었으나 그후 자유화 민주화의 소리가 높아지고 정치 및 경제의 개혁 바람이 불면서 프라하의 봄은 시작되었으며,
- 체코는 예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영화, 사진, 애니메이션, 미술, 조각등 다양한 방면으로 발달하였으며 교육을 위한 기관들이 많다. 하지만 체코가 그리고 프라하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아무래도 영화 “프라하의 봄” 그리고 원작인 밀란 쿤데라의 “참을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단순한 사랑놀음이 아닌 이 영화를 통해 당시 체코의 정치적인 상황과 격변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과 자유의 바람이 체코슬로바키아에도 불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결국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 독립 하였으며,

- 특히, 체코는 동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나라로서 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적인 측면의 깊이에서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여러 문화적 유산을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가득한 나라임.

◆ 프라하(CesKa)의 고대 유적지 등 견학---2008. 2. 19.

-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흔히 『백탑의 도시』, 『유럽의 음악학원』, 『북쪽의 로마』 등으로 불리어지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프라하는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로 자리를 잡은 9세기말부터 천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신비의 고도이다. 작은 골목 하나 하나에도 중세의 향기가 배어있어 프라하를 견학하다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도시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 오랜 역사는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건축물로 채우고 있으며, 사실 프라하만큼 다양한 건축물을 볼 수 있는 도시도 드물었다.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아르누보 등의 다양한 건축양식이 제각기 아름다움을 뽐어내고 있어 도시전체가 박물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현대적인 건물과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은백색 고대 건축물이 웅장하게 자태를 드러내며 넓은 광장으로 이어질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황금빛 돔과 유럽의 건축, 미술사를 대표할 만큼 프라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었다.

- 시내 중심을 굽이굽이 흐르는 블타바 강은 우뚝 솟은 프라하 성과 맞은편으로 펼쳐진 구시가와 대비를 더욱 강조해준다. 구시가는 1989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좁은 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카를 다리가 있다. 블타바강과 어우러져 다리위에서 성쪽을 바라보는 풍경은 프라하 도시의 절정에 달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 그러나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에도 슬픈 역사가 있다고 한다. 후스 전쟁(15세기 초엽 종교개혁자인 후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황제에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 30년 전쟁,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개혁운동 당시의 구소련,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의 침입, 그리고 1989년 구 체코슬로바키아 체제 전환인 『벨벳 혁명』까지 프라하는 수많은 역사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곳이다.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강인성이야말로 오늘날 프라하를 세계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 프라하는 한해 1억명의 외국인이 찾아드는 세계 6대 관광도시의

유럽문화도시 중 하나이다. 오스트리아의 빈과 더불어 관광수익으로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3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분리 이후 개방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맥도날드, 버거킹, 밀카, 하겐다즈등으로 가득찬 시내는 온통 서구화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서방의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도시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도시의 변두리로 나가보면 프라하의 또다른 얼굴, 사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프라하는 도시 전체가 관광 명소라고 해도 좋을 만큼 곳곳에 볼거리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역을 모두 둘러보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크게 7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프라하성, 프라하성 서쪽, 말라스트라나 지구, 구 시가와 신시가, 유태인 지구, 비슈흐라드, 프라하 교외지역 이다. 이중 우리 연수단은 2곳 정도로 정하고 프라하성과 구 시가와 신시가를 견학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프라하성의 높은곳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1) 프라하 성

- 체코를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물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성이다. 9세기말 건설되기 시작해 카를 4세 때인 14세기에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고, 이후에도 여러 양식이 가미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변화하다가 18세기 말에야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프라하 구시가지의 불타바강 맞은편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길이는 570m, 넓이는 128m이며, 9세기

이후 통치자들의 궁전으로 사용된 로브코위츠 궁전 외에 성(聖) 비투스대성당·성조지바실리카·성십자가교회 등 3개의 교회와 성조지수도원 등 다양한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13세기 중엽에 초기 고딕양식이 첨가되고, 이어 14세기에는 프라하 출신인 카를 4세에 의해 왕궁과 성십자가교회 등이 고딕 양식으로 새롭게 건축되면서 이 때부터 체코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그 뒤 블라디슬라프 2세 때 후기 고딕양식이 가미되고, 1526년 합스부르크왕가가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시 르네상스 양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다 바로크시대인 1753년부터 1775년 사이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는데, 시작에서 완성될 때까지 900년이 걸렸다.
- 1918년부터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내부 장식과 정원이 새롭게 정비되었다고 한다. 왕궁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정교한 조각과 높이 솟은 첨탑, 화려하고 다채로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유럽에서도 중요한 역사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프라하뿐 아니라 체코·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이며, 특히 성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 역사적 유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과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후손들의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고궁과 유물들을

연상 했을때 규모와 크기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웅장함을 느끼고 후손들에게 항상 크고 웅장한 포부와 꿈을 심어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던 곳이다.



【 프라하 성 】

2) 성 비트 성당

- 프라하 최대 건축물중의 하나이며 체코의 프라하성 중앙에 있다. 성 비트 성당이 완성될 당시 최초 설립자인 웬체슬라스 왕자의 서거 1,00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중세의 고딕 양식을 바탕으로 여러 양식이 혼합되어 있고 성당 내부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곳이다. 최초의 설계자는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마티아스였다가 페터파를러가 그의 뒤를 이었고, 이후 파를러의 아들과 또 다른 건축가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 갔

다. 공사는 후스의 종교개혁 때 잠시 중단 후 다시 재개되어 16세기 중엽 르네상스식 첨탑이 완공되고, 17세기에 양파 모양의 바로크식 지붕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신고딕 양식의 완성된 형태를 갖추었다고 한다.

- 프라하 성안에 있는 성 비트 성당은 92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세기 1929년에 완공했다고 하니 무려 1004년 동안 공사해서 완성 하였으며 체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천년의 정성으로 성당을 완성한 프라하 시민들이 보물로 여기는 비트 성당을 보러 가는 길의 발걸음은 종교가 다른 우리에게도 마치 성지 순례를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 성 비트 성당 】

3) 황금소로(黃金小路, Golden lane)

- 프라하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프라하성(城)을 지키는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루돌프 2세 때인 16세기 후반 연금술사와 금은세공사들이 살면서 황금소로라고 불리어졌다고 한다.
- 지금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프라하성의 일부로, 성의 입구를 지나면 좁은 골목길이 나오는데, 이 골목길이 황금소로이다.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다.
-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대 이후 프라하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면서 이 골목 역시 프라하를 찾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찾는 명소가 되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기념품점이나 선물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중세 때의 투구나 장신구 등을 전시하는 전시장도 있었다.
- 그러나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성(城)》 《변신》의 작가 카프카(Franz Kafka) 때문이다. 카프카는 1916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여동생이 집필활동을 위해 마련해 준 이 골목 22번지의 작은 집에서 매일 글을 쓰고, 밤이 되어서야 자신의 하숙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다는데, 프라하성에서 모티프를 얻어 쓴 작품 《성》도 이때 완성한 것이라고 한다.
- 이 황금소로는 작은 골목에 색색의 아주 작은 공간의 집들이

하나의 건물처럼 쪽 이어서 있다. 키 큰이가 가게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할 만큼 작은 집들이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니 파란 대문이 눈에 띈다. 카프카가 집필하던 그 유명한 집이다. 그 곁으로 모두 열다섯 채 정도의 아주 작은집들에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가게들이다. 그 옛날에 서민들이 살던 곳이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었고. 이 집들의 위층은 하나의 복도처럼 이어진 회랑인데 무기와 칼, 갑옷 등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예날에는 보초병이 서고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 황금소로를 보면서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잠시나마 생각이 났다.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사회상황이고 관습이었겠지만 그 화려한 바로크, 로코코의 성들과 하늘을 찌르고 땅을 제압하는 고딕의 성당이 있는 곳에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전체가 궁 한 칸만 못하다는 생각과 세상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다지만 너무나 큰차이를 느낄수 있었다.



【 황금소로 】

4) 카를교

- 12세기 목제교가 있었으나 강의 범람으로 붕괴된 후 12세기 중엽에 석교로 대체하여 카를교를 세웠으나, 홍수로 인하여 다시 붕괴된 후 1357년 카를 4세때 교회 건축가인 피터 팔레지(Peter Parter)가 다시 재건하여 1402년 완공되었으며, 516m의 길이에 16개의 기둥과 3개의 브릿지 타워가 있고, 18세기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30여개의 성인 조각상들이 카를교를 장식하고 있었다.
- 강 서쪽의 왕성(王城)과 동쪽의 상인거주지를 잇는 최초의 다리로 보헤미아왕 카를 4세 때(1346~1378)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다. 후에 양쪽 난간부에 성인들의 석상을 세웠고, 다리 서쪽은 칸파라고 하는 작은 운하가 있는 지구로 소(小)베네치아라고도 한다. 프라하의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 카를교 】

5) 구 시가 광장

- 프라하의 심장부라 불리는 구시가 광장은 11세기경 교회와 상인들의 주거지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구시청사가 세워진 13세기 이후 시가지의 중심이 되었는데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로 둘러싸인 광장으로 교회와 구시청사 등 역사적인 건물이 많고 민중봉기와 처형 등 여러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곳이다.
- 커다란 광장의 중심에 15세기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기념동상이 있으며, 카를대학 총장이기도 했던 얀 후스(1370~1415)는 15세기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이단으로 내몰려 독일에서 화형당했으나 후에 그의 신봉자들이 후스파를 만들어 카톨릭 교회와 싸웠고 후에 순교자로 추앙받게 된 인물이며, 체코인이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그가 죽은지 500년이 지난후 1915년에 이동상을 세웠다고 한다.



【 구시가 광장 】

- 구시가 광장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건물이 틴성당인데 프라하 구시가를 대표하는 틴 성당은 1365년에 건립되어 17세기까지 다양한 양식이 더해져 완성된 건축물이며, 15세기 전반에는 후스파의 본거지로 사용되기도 했던 곳이며, 맞은편에는 구시청사와 천문시계탑이 있기도 하다.

6) 구 시청사와 천문시계

- 구 시가지 광장에서 전형적인 고딕 양식을 자랑하고 있는 건물은 구 시청사이다. 1388년 시민권을 하가하기 위해 세운 이래 1410년 시계탑이 세워졌다고 한다. 원래는 상당히 큰 건물이었으나 제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폭격을 받아 부속 예배당과 북쪽 건물의 상당부분이 불에 타고 말았다. 그 후 남은 부분을 복구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높이가 70m에 이르는 탑의 내부에는 감옥이 설치되어 있어 후스파의 사람들이 수용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탑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남쪽에 설치된 천문시계이다.
- 프라하의 명물 천문시계는 15세기 프라하 대학의 수학교수였던 하누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발하고도 아름다운 시계에 대한 소문이 유럽 각 국으로 퍼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주문이 쇄도하였다. 그러자 이 시계를 독점하고 싶은 프라하 시청에서는 하누슈 교수가 두 번 다시 시계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를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그 후 자신이 만든 시계를 만져보기 위해 시계탑 위에 올라가 시계에 손을 댔을 때 시계 바늘은 그대로 멈추어 40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1860년 수리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 1410년 제작된 천문시계는 위아래 두 개의 원으로 천동설에 입각한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의 원은 칼렌다룸이라 하여 해와 달 전체의 움직임을 묘사한 것으로 1년에 한바퀴를 돌며 년·월·일·시간을 나타낸다. 아래쪽에 있는 원은 플라네타룸인데 이것은 12개의 계절별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헤미안의 농경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천문시계 한 가운데에는 푸른 지구가 위치해 있고, 3개의 시계 바늘 축은 지구의 중심으로서 프라하를 가리키고 있다. 3개의 시계바늘은 각기 바늘 끝에 달려 있는 태양·달·별 모양이 암시하듯 태양 시간, 달 시간, 황도대를 각각 가리키고 있으며, 외부 24 아라비아 숫자는 고대 보헤미아 시간을, 다음 안쪽 두 쌍의 12로마숫자는 중부유럽의 낮과 밤시간을, 맨 안쪽(푸른색 내) 12 아라비아 숫자는 일출~일몰 시까지 낮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푸른색은 하늘을, 밑의 갈색은 땅을 나타내며, 갈색 안의 검은 색은 여명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으며, 매시 정각 천문시계 옆에 있는 해골인형(죽음을 상징하며 시간의 유리잔을 들고 있음)이 움직이면서 종을 치면, 그 위 두개의 창문이 열리면서 그리스도 12제자 인형이 차례로 나타난다. 이때 천문시계 왼쪽에 있는 거울을 보는 자(허영의 상징)와 돈지갑을 든 유태인 인형(부를 상징)이 같이 움직이고, 아울러 오른쪽의 터번을 쓴 터키인은 음악을 연주한다. 천문시계는 여명의 시간이 다가오면 허영과 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매시마다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 시계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리작업이

있었으나 아직도 매시정각에 시계 바늘 윗 부분에 있는 창문 2개가 열리면서 작은 종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뜻하는 인형들이 차례로 얼굴을 내밀고는 사라진다. 마지막에는 시계의 가장 위쪽에 닭이 나타나서 우은 것으로 끝이 난다. 매시 정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비디오를 들고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장사진을 이룬다.



【 천문시계 】

- 구 시청사 바로 옆 1945년까지만 해도 청사의 신 고딕양식 건물이 있던 곳이었으나, 1945년 5월 소련군이 이곳 프라하에 입성하기 수일 전에 나치 독일군이 밀어버려 지금도 빈터로 남아있다. 건물 안에는 작은 예배장이 있는데 프라하 시민에게는 결혼식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한편 천문시계가 있는 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구 시청사 내부에는 역대 프라하 시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집무실과 예배당을 견학할 수 있었다. 예배당에서는 벽시계의 최상 부에 있는 12사도의 조종 장치를 구경

할 수 있으며, 현재 1층에는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고 있었다.

- 특히 이곳에서 느낄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이런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은 관광객이 많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고장을 처음찾고 거창을 잘 모르는 외지인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장소를 만남의 광장(조성 중)에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안내내용: 관광안내, 숙박업소, 관공서 위치, 일반민원, 특산품, 먹거리, 식당 등)



【 구시가지 광장 】

7) 바츨라프 광장

- 예전에는 가축시장이었던 이곳이 현재는 프라하 최대의 변화가로서 문화, 상업, 교통의 중심지이다. 1968년 1월의 『프라하의 봄』으로 불리는 자유화 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이며, 1989년 11월 체코 대통령을 지낸 하벨의 지도하에 공산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벨벳혁

명이 전개된 장소로서, 역사적 사건의 무대이며, 또한 메이데이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는 등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1980년 서울의 봄, 1988년 미얀마 사태, 그리고 1989년 북경의 천안문 사건과 함께 세계사에서 자유와 민주를 위한 시민항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 이광장의 시작에는 바츨라프 왕의 기마상이 있고 끝에는 국립박물관이 있다. 보헤미아를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한 최초의 왕이며, 바츨라프 왕은 11세기 보헤미아 왕국을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이라고 하며, 그 기마상 아래에는 프라하의 봄 시위에서 희생된 젊은이를 기리는 추모의 공간이 있고, 그당시 분신자살한 대학생의 안 파라프를 기리는 나무도 있었다.

- 지금은 이 거리 양쪽에 상가와 서점, 호텔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저녁이면 네온사인 불빛에 프라하에선 몇 안되는 신시가지 분위기의 거리이며, 체코도 예전과 같지 않아서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 많은 부분이 변화를 맞이하여 점차 화려하게 변해가고 있지만, 어느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유와 민주를 위한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는 곳이였으며, 특히 이런 변화의 물결속에 우리나라의 LG와 SAMSUNG의 대형 광고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느끼고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가장 인기 있다는 것을 가이드로부터 알게 되었으며, 국력신장을 위하여 기업인의 해외 활동과 노고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바츨라프 광장 】

8) 체코 “프라하시 의회” 방문

○ 체코는 1992. 12월 헌법이 제정되어 대통령제를 가미한 민주공화국의 다당제 체제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 국회는 양원제로서 281명중 상원의원 81명이며 임기는 6년이고, 하원의원은 200명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 정당은 시민민주당, 사회민주당, 보헤미아 모라비아공산당 등 다당제이다.

○ 프라하시 의회 방문

- 의장 : 제일 다수당에서 선출하며, 시장을 겸직하고 있었음.

- 의원 : 79명(상임의원 9명, 비상임의원 70명), 임기 : 4년

· 시민민주당, 사회민주당, 보헤미아 모라비아공산당 등 20개 정도의 정당이 있음.

- 의원 보수(의정비) : 상임의원 9명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상
임의원 70명은 무보수 명예직임.
- 의회 : 입법기관과,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
 - 의회와 집행부가 2원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회주의
- 의회 운영 : 월 1회정도 전체회의를 실시하며, 의장이 단상에서
진행함.
- 프라하시 의회의 특색
 -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상임의원 9명은 평상시 집행
부 해당실과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의회 개원시 회의에 참
석하고 있었음.



【 프라하 시의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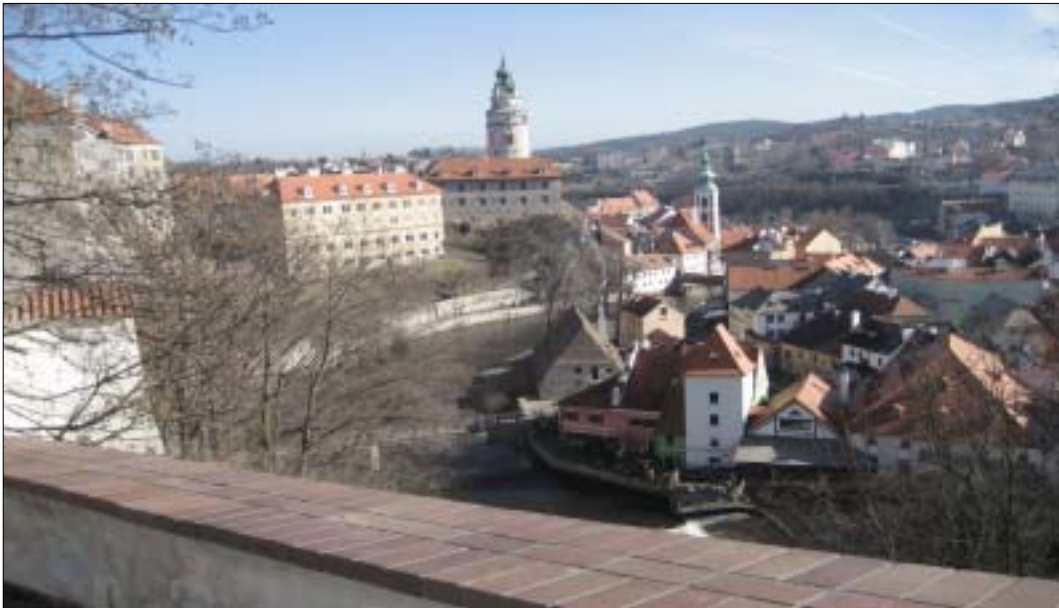
◆ 체스키 크룸로프(Cesky Krumlov)의 고대 유적지 등 견학
---2008. 2. 19.

○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200여 km 떨어진 오스트리아의 국경 근

처에 체스키크룸로프가 있다. S자로 완만하게 흐르는 블타바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도시로 붉은 지붕과 둥근 탑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체코가 공산 국가였던 시절에는 그저 낙후된 도시에 불과했던 체스키크룸로프는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300여 개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 유적으로 등록되었으니 도시 전체가 유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세기 남 보헤미아의 비테크 가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고딕양식의 성을 짓기 시작한 것이 체스키크룸로프의 시작이라고 한다.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건물들이 일부 추가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거의 없었다. 중세 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곳이었으며,

- 13세기 세워진 체스키크룸로프 성은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다. 16세기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축하면서 둥근 지붕의 탑과 회랑 등이 추가 되었다. 성 안에는 영주가 살던 궁전과 예배당, 조폐소, 바로크식 극장과 정원이 재현되어 있어 중세 귀족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었다. 구시가의 중심지는 중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스포르노스티 광장으로 주변에 후기 고딕 양식의 성비투스 성당 등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즐비하였다. 체스키크룸로프는 다른 중세 도시들처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었으며, 차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이 좁은 길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과 카페가 가득해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옛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리의 옛 유물을 잘 보존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음.



【 체스키 크롬로프 】

2. 오스트리아(비엔나, 잘츠부르크)

가. 견학 개요

- 견학 일자 : 2008. 2. 21 ~ 2. 23(3일간)
- 견학 대상 : 미라벨 정원, 대성당, 구 시가, 잘츠캄머굿, 호엔잘츠부르크, 베엔나 8구청 등 고대 유적지

나. 주요 방문지 및 연수내용

◆ 오스트리아(Republic of Austria)

- 수 도 : 비엔나(Vienna, 819만명)
- 인 구 : 약 1천 200만명
- 면 적 : 83,871km² (한반도의 1/3, 평지:산악 = 3:7)
- 주요도시 : 빈(Vienna), 잘츠부르크, 린츠 등
- 주요민족 : 게르만족(88.5%), 크로아티아인 및 토착민 등(11.5%)

- 주요언어 : 독일어가 공용어
 - 종교 : 카톨릭(74%), 개신교(5%), 기타(21%)
-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이다. 북쪽으로 독일·체코, 동쪽으로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으로 슬로베니아·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하고, 유럽의 6개 영세중립국 중 하나이며, 헌법에 영속적 중립성을 명시했으며, 행정구역은 9개주로 되어 있었다.
- 오스트리아의 역사는 6세기 초 바이에른인(人)이 도나우강 유역으로부터 알프스 산기슭에 걸친 일대를 지배한 무렵부터 시작된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오토 2세(재위 973~983)가 976년에 이 지역을 바이에른 후작(侯爵)의 변경령(邊境領 : Bayrische Ostmark)으로 정하였고, 오토 3세(재위 983~1002) 무렵에 처음으로 'Osterriche(동쪽의 나라)'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지방은 바벤베르크의 귀족이 통치하였으나, 얼마 후인 1278년 합스부르크가의 초대 황제 루돌프 1세(재위 1273~1291)의 영유지(領有地)가 되었으며,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1815년 독일연방,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1918년 공화국, 1934년 독일에의 합방, 1945년 소련 점령을 거쳐, 1955년 독립주권을 회복했다
- 오스트리아는 연방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의회는 양원제이며 하원은 국민의회라 불리고 4년 임기의 의원 183명은 비례대표제에 따라 국민이 선

출한다. 그에 반해 상원으로서는 연방의회가 있고 연방의원중에서 64명은 연방주의 주 의회에서 파견된다. 법률은 국민의회에 의해 결정되고, 그 효력 발생은 연방의회에 의해 지연될 수는 있으나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일상 정치의 수행은 연방 총리의 과제이고, 국가원수는 대표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한다.

- 중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역사를 말할 때 합스부르크 왕가는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 역사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1273년에 루돌프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이래 65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치며 문화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성시대에는 서쪽으로 대서양 연안, 동쪽으로 발칸반도까지 세력이 미쳐 ‘해가지지 않는 세계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고 한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남긴 화려한 유적과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것은 유럽 여행을 더욱 흥미롭게 이끌어 줄 것이다

- 오스트리아 만큼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있는 나라는 드물 것이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리. 대지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심속의 숲.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위대한 음악가의 숨결이 남아 있는 산책로. 이 나라의 풍요로움에는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보면 볼수록 뛰어난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알면 알수록 강한 흥미와 매력이 생기는 나라였음.

◆ 팔츠부르크의 고대 유적지 등 견학---2008. 2. 21~22

1) 팔츠부르크시

○ 찰즈부르크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아니면 음악가 모차르트를 떠올릴 것이다. 이토록 낭만과 음악의 도시로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도시는 알프스의 맨 북쪽 끝자락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찰즈부르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선 만년설 산을 배경으로 다소 곳이 앉아있는 이 도시의 아름다운 도시미에 반하게 되는 곳이다. 도심에서 찰자흐강 건너 구 시가지의 남쪽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호엔찰즈부르크성은 중세의 향기를 풍기고 있고, 성당을 끼고 있는 노천 카페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이중주가 생음악으로 연주되며, 여행자들이 바쁘디 바쁜 도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을 휴양지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 도시의 차분하고 고전적이며, 음악적인 향취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을 다스리던 대주교는 당시 군주대주교라고도 불리었을 정도로 종교상의 귀위자일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정치상의 군주이기도 했다. 대주교는 문자 그대로 이곳의 수장으로서, 교회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모든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를 다스려왔다.

○ 찰즈부르크는 직역하면 “소금의 성”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알프스는 수 천 만년 전 바다 밑바닥이 용기작용에 의해 위로 솟구쳐서 형성된 산악지대이다. 솟구칠 때 바닷물이 같이 따라 올라와 고인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 굳어져 암염이 되었으며, 찰즈부르크 북쪽에는 거대한 암염이 존재하고 있었다.

2) 호엔찰즈부르크성

○ 찰즈부르크 시내에 있는 호엔찰즈부르크성은 1070년경에 처음 건설되었고 그 후 1500년초와 1700년대 후반의 개·증축으로 중부

유럽에서는 가장 큰 성으로서 오늘날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주교보다 높은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 성내의 옛날 집들에는 실제로 중세에 사용되었던 고문실과 고문도구, 그리고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기도했으며, 성의 가운데의 조금한 광장에는 커다란 보리수가 두 그루 있고 그앞에 우물이 하나있는데 후에 슈베르트는 이곳을 방문한 다음 비엔나로 돌아가 슈베르트의 “보리수 ”를 작곡 했다고 한다.

- 호엔잘즈부르크 성는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성에 올라가면 잘즈부르크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뒤로는 알프스의 지붕들이 안길 듯이 다가 오는 것 같았다. 이곳은 현재 성지로 보존되었는데 중세 때 화재로 인해 마을의 모든 것이 한줌의 재로 변해버렸으나, 마을 한 쪽에 세웠던 성모마리아상만은 불에 그을리지도 않은 채 온전하게 남아있었다고 한다. 후에 이곳에 성당을 세우고 성지로 보존하게 되었으며, 이 성당에서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곡이 처음으로 연주되었고, 나중에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게 된 곳이기도 하다. 현재 잘즈부르크는 유네스코에 의해 유럽의 민속촌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었다.



【 호엔잘즈부르크성 】

3) 모차르트 생가 및 간판의 거리

- 모차르트의 집은 요즈음 “간판의 거리”라는 별명을 지닌 가장 변화한 거리 “게트라이데”가 9번지 건물의 4층에 있었으며, 간판의 거리답게 상점의 간판을 보면 그 상점이 무엇을 파는 상점인지 알 수가 있었다. 모차르트는 9살 때 이미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생전에 53개의 완전한 교향곡과 11개의 단편을 남겼으며, 이외에도 많은 교회음악과 미사곡, 그리고 장송곡을 남겼고, 주옥같은 피아노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은 셀 수 없을 정도이며, 매년 7,8월이면 음악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음악회와 오페라 등 공연이 펼쳐진다고 한다. 그곳에서 다리를 건너 신시가지로 들어 서게 되면 미라벨 궁전이 나타난다.



【 모차르트 생가 】

4) 미라벨 궁전 및 정원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도레 미송”을 불렀던 곳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있는 미라벨 정원은 짙스

부르크 신시가지의 미라벨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으로 미라벨 궁전은 1606년 볼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사랑하는 여인 살로메를 위해 지었다고 한다. 미라벨 정원은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여 조성하였으며, 분수와 연못, 대리석 조각물과 많은 꽃들로 잘 장식되어 있었다. 중앙분수 주위에는 1690년 모스트가 조각한 그리스 신화속 영웅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유럽의 많은 바로크 예술품들을 전시해 놓은 바로크 박물관 있었으며, 미라벨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으로도 인기가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꽃 장식을 한 마차가 시내를 한바퀴 돈다고 하며 예식비용은 시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하여 저렴한 가격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이 결혼식을 하러 많이 온다고 했다. 쾰른부르크시를 세계시장에 알리는 좋은 시책이라고 우리 일행들은 생각을 했으며, 거창군에도 이런 시책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았음.

- 현재의 주교가 살고 있는 건물과 기하학적으로 가꾸어놓은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이곳에서 바라보면 호엔쾰른부르크성의 모습이 정원과 잘 조화가 되며, 시내 광장에는 모차르트의 음악들이 연주되고 앞으로도 계속 연주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쾰른부르크는 비운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빛나는 음악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영원한 음악의 고향이었으며, 시내 곳곳을 방문하는 동안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산 일이 있었는데 우산 및 다른 상품에도 모차르트와 연계한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시민들 또한 모차르트와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느낄수 있었음.



【 미라벨 궁전 및 정원 】

5) 짤츠캄머굿 및 할슈타트

-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짤츠캄머굿은 1,000~3,000m의 알프스 산들과 76개의 호수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알프스 산맥의 백미라 할 수 있다. 할슈타트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로 할슈타트호 가까이 위치해 있다. 도시명의 'hal'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salt)이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소중한 자원인 소금을 통해 역사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곳이다. BC10~5세기에 할슈타트문화가 발달했고 할슈타트 분묘군 유적이 남아 있었다. 도심 위쪽에는 B.C 2000년경 형성된 세계 최초의 소금광산이 있다. 1311년부터는 도시에 장이 서기 시작했고, 1595년 소금 산업의 중심지가 40km 떨어진 에벤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현재는 관광업이 도시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슈타트호는 호수 기슭 경사면을 깎아서 집을 지은 오래된 마을로 유명하다. 근처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산'이라

는 뜻의 다흐슈타인산(3,800m)이 있다. '할슈타트-다흐슈타인-짚츠캄머굿 문화경관'은 199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짚츠캄머굿 및 할슈타트 】

6) 할슈타트 오수처리장 비공식 견학

-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짚츠캄머굿 지역을 견학하면서 할슈타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오수처리장을 발견하여 버스안에서 공식일정에는 없지만은 견학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협의하여 결정을 하였다. 이때 현지가이드가 공식 일정인 할슈타트 지역을 견학하고 다시 이길로 되돌아 온다고 하여 되돌아 올 때 견학을 하자고 하여 그렇게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 만년설이 뒤덮히고 청정지역의 오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일행은 궁금하여 당초 일정에도 없는 비공식으로 오수처리장 정문 앞에 버스를 세우니 오수처리장안에서 젊은 직원이 1명 나왔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 방문객이 도착하였으나 젊은 직원은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도 없이 우리 일행을 오수처리시설안으로 친절히 안내를 하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구석구석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배출되는 정화조에는 잉어와 금붕어가 살고 있었으며 수질은 2급수 이상 된다고 하였다. 거창군의 시설과 비슷한 듯 하였으나 유럽에서는 거액을 투자한 최신 공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곳 시설들을 견학 하면서 느낀점은 이런 큰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한사람이 관리를 하면서도 방문객들에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공인으로서 많은 것을 느낄수 있었다.



【 할슈타트 오수처리장 】

◆ 비엔나의 고대 유적지 등 견학---2008. 2. 23.

1) 빈(Wien)

- 영어로는 비엔나(Vienna), 체코어로는 비덴(Videň), 헝가리어로는 베치(Becs)라고도 한다. 도나우강(江) 상류에 있는 유럽의 고

도(古都)로, 지금도 중부 유럽에서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를 이루고, 수백년 동안 대제국의 수도였으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중부 유럽을 동서 방향으로 달리면서 민족·기후 등의 경계를 이루는 알프스·카르파티아 산맥을 관류하고 있는 도나우 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BC500년에 켈트 족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도시로 1440년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가 들어오면서 정치, 문화, 예술, 과학과 음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사실상 신성 로마제국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1805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으며 수도로서의 기능을 독일 베를린에 넘겨주었다가 1954년 독립하면서 다시 수도가 되었으며,

- 베토벤(Beethoven)과 모차르트(Mozart)등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꼽히는 슈테판 성당(Stephansdom)과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셴부른 궁전(Schloss Schonbrunn), 빈 공원(Wiener parks)등이 유명하다.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ZE), 국제 원자력 기구(IAEA)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 기구들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 알프스·카르파티아 산맥이 끊어지는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북서쪽의 중부 유럽 기후에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며 강수량도 비교적 적은 동쪽의 대륙성 기후로 옮겨지는 점이지역(漸移

地域)에 해당한다. 1월 평균기온은 0.4℃, 7월은 19℃이며 한낮에는 24℃가 된다. 연강수량은 691mm 내외이며 여름에 다소 많이 내리는 편이며, 동쪽과 남쪽은 떡갈나무와 흑송 숲이 무성하여 좋은 대조를 이룬다

2) 비엔나 8구(조셉 스테판) 구의회 비공식 방문

- 의장 : 제일 다수당에서 선출하며, 구청장(요셉 슈타트)을 겸직하고 있음.
- 구청에는 관용차가 없으며, 구청장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관용 자전거가 있었음.
- 의원 : 40명(녹색당 14명, 사회당 12명, 국민당 12명, 자유당 2명)
- 임기 : 4년
- 의회 : 입법기관과,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
- 의회와 집행부가 2원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회주의
- 의회 운영
- 7개 상임 위원회가 있으나 복지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임
- 1년에 4회의 회의 개최(본회의 방청가능, 특위는 방청 불가)
- 민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100% 처리하고 있었음
- 모든 예산은 비엔나 시에서 지원(년 30억원 정도, 갑작스런 예산은 구에서 선집행하고 차후에 시에서 지원)
- 예산 집행계획은 구청장, 시 공무원, 재정위원회가 상호 협의해서 수립
- 비엔나 8구 구의회의 특색
- 의장이 구청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의장(구청장)은 대외적으로 상징성에 가깝고 부의장이 행정 및 예산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공무원의 수는 구청장,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5명정도(비엔나 시 공무원은 총 7명정도 되며, 그 중 절반 가량은 의료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에 종사하고 있었음)

- 문화행사가 많은 편이며, 2007년 영화를 60편 정도 상영 하였음
- 구청장, 부구청장은 고액의 봉급을 받고 있었지만 의회 의원들은 월급이 우리나라의 60만원 정도 받는 명예직이며, 대부분 직업이 따로 있다고 하였음



【 비엔나 8구 구의회 】

3) 쉐부른 궁전 및 정원

- 쉐부른 궁전의 “쉐”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부른”은 샘 또는 분수를 뜻하고 있다고 한다. 즉 아름다운 분수가 있는 궁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은 1744년에서 1750년까지 피가시의 손에 의해 완성된 곳이다.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베르사유 궁전에 견주어서 만들어진 화려한

왕궁이다. 궁전 내부에는 총 1441개의 방 중 45개만 공개하고 있었으며, 특히 모차르트가 6살 때 마리아 테레시아 여왕 앞에서 연주하고 구혼을 했던 “거울의 방”과 1814~1815년에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 정세를 의논하기 위해 열린 빈 회의 때 화려한 부도회가 펼쳐진 ‘대 홀’과 나폴레옹 2세의 ‘회상의 방’, 마리아 테레시아의 중국식 좌담실 등이 유명하다. 또한 시리내 천장에 프레스코화, 크리스텔 샹들리에와 금박 장식으로 멋지게 치장되어 있다. 이 밖에 건물의 중앙에는 황제의 생활관으로 이곳에 마리아 테레시아 여제, 프란츠 요셉과 마지막 황제인 카알 1세 등의 유물을 볼 수 있었다.

- 쉘부른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과 반대로 본관이 앞에 있고 그 뒤 쪽에으로 정원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베르사유 궁전을 안가 본 관계로 직접 비교는 불가능 했다. 하지만 그 후원의 크기나 규모를 봤을 때 권력의 힘을 느낄수 있었으며, 이 궁전 안의 공원은 고전과 결합한 로코코 양식의 아름다운 바로크 정원이라고 한다. 정원의 끝은 나지막한 언덕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언덕 위에서는 궁전과 후원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고 또한 화단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분수, 조각상 등이 한데 어울려진 멋진 정원이다. 또한 700여종의 동물들이 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과 열대 식물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일행은 계절 관계로 견학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 쉐부른 궁전 및 정원 】

4) 케른트너거리(빈의 중심가)

- 케른트너거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중심거리이다. 이곳에는 성슈테판 성당, 시청사, 국회의사당 등이 있으며, 우리 일행 중 누군가가 배탈이나서 현지에서 소화제를 구입한 곳이며, 점심 때는 우리 음식인 김치찌개를 먹은 곳으로 이번 일정에서 기억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다.
- 비엔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비엔나 커피'를 주문하면 비엔나 커피가 없다고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비엔나 커피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비엔나 커피의 정체는 아인슈페너(Einspanner) 커피로 정의 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인슈페너 커피는 카페로 들어오기 어려운 마부들이 한손에 말고삐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설탕과 생크림을 넣은 커피를 마차위에서 마시게 된 것이 시초였는데, 우리나라에 비엔나 커피로 알려진 아인슈페너가 처음

소개된 것은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설과 1980년 '더 커피 비너리(The Coffee Beanery)'를 설립한 미국인이 커피점을 하면서 커피에 생크림과 계피가루를 얹은 아이스크림 형태의 커피를 선보인 것이 효시라는 두가지 설이 있다. 아인슈페너는 사전적 의미로도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마부를 뜻하고 있어 당시 비엔나의 사회상과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비엔나의 저녁은 이곳의 전통음식을 먹기로 하였다. 이곳의 전통 음식으로는 호이리게(Heurige)라는 유명한 음식이 있었다. 호이리게는 200여년전 요제프 2세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올해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호이리게 포도주를 파는 선술집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한다. 비엔나의 숲기슭에 호이리게 마을이 모여 있는데 그 중 우리일행은 한음식점으로 갔었다. 음식은 훈제고기, 소시지, 감자, 샐러드, 빵, 소스, 와인 등으로 만든 호이리게 정식이었는데 저녁을 먹는동안 부자(父子) 연주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여러곡 연주하고 5분의 팁으로 '아리랑' '부산갈매기' '사랑' 등 앵콜송을 연주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여행객이 얼마나 많이 왔다갔는지를 짐작케 했으며, 시내에는 우리나라의 기업간판이 곳곳에 많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국력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5) 성슈테판 성당

- 성슈테판 성당은 12세기에 세워진 오스트리아 최고의 성당이며, 빈의 상징이자 혼이라 일컬어지는 건물로 오랜 세월이 걸쳐 굴곡 깊은 빈의 역사를 지켜봐온 장본인인데, 23만개의 벽돌로 지어졌

다는 사실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137m의 첨탑 슈테플 등이 유명하다. 어딜가나 유명건축물들은 현재 보수공사중인 듯 하다.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보지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며 워낙 규모가 커 카메라에 다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제대로 찍으려면 바닥에 눕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았다. 정면을 감싸고 있는 전면부는 13세기 로마네스크 양식, 높은 뿔쪽탑과 현란한 스테인글라스는 고딕 양식, 주제단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여기서는 모차르트의 화려한 결혼식과 초라한 장례식이 거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 성슈테판 성당 】

6) 시청사

- 옛 시청사를 대신하기 위해 쾰른 대성당을 완공한 프리드리히 본 슈미트가 설계한 네오 고딕 양식의 스타일의 건축물을 1872~1883년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중앙의 탑 위에 수호 기사상이 있으며, 특히 중앙의 뿔쪽한 첨탑까지의 높이는 104m, 앞에는 초대 대통

령 카를 렌너 등 입상들이 늘어서 있으며, 청사앞 광장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겨울철이라 시청앞 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연중에는 연주회, 영화 등의 야외 상영과 시장을 열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장이 열린다고 한다.



【 비엔나 시청사 】

7) 국회 의사당

- 국회 의사당은 시청사 앞 광장 남쪽에 있으며, 마치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하는 건물로서 1883년 완성 되었으며, 정면에는 날개를 단 승리의 여신 니케가 있으며, 샘 안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 대 석상이 서 있는데 이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도나우, 인, 엘베, 몰다우 등 네 강을 상징하는 샘물을 밟고 서서 승리의 여신 니케아를 오른손에 얹고 있는 모습이였다.



【 비엔나 국회의사당 】

- 8) **훈데바르트 바씨의 쓰레기 조각장(비엔나 시내 쓰레기 조각장)**
- 세계적인 음악, 문화, 경제의 도시 중심부에는 비엔나 쓰레기 조각장이 있다. 바로 훈데바르트 바씨 쓰레기 조각장이다. 훈데바르트 바씨는 사람 이름이며, 건축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친환경? 자연주의 작가이기도 하다. 주요 건물 작품들은 빈과 독일, 뉴질랜드에 있다고 한다. 외계인의 우주선 같기도하고 올림픽의 성화 같기도 한 우뚝 치솟은 기둥하며 원색과 곡선으로 치장된 벽이며 이것이 과연 일반인들이 멀리하기 일쑤인 쓰레기 조각장이란 말인지.... 그의 기발함에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금색의 양파처럼 생긴 타워가 상징적인 쓰레기 조각장. 이 건물 또한 근대 건축이 배제하는 다채로운 색채와 곡선으로 건축되어 있었다.
 - 혐오시설인 쓰레기 조각장을 시내에 짓는다고 시민들의 반대운동

이 극심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시장은 어느곳으로 장소를 옮겨도 반대는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시민들을 설득하기로 결심하고 시민들 설득에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고 한다. 1971년 소각장이 처음 들어섰을 땐 밋밋하고 건조하며, 기능성만 강조한 건물이었고, 126m 높이로 치솟은 굴뚝은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운동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1986년 당시 시장은 소각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하여 빈이 낳은 세계적인 현대 작가 훈데바르트 바셔에게 소각장 시설 설치비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혐오 기피시설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림으로서 관광지로 부각시켰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쓰레기는 고갈될 가능성은 없기에 자연친화적인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결국 인근 아파트에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하여 인근 아파트에 더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인근 아파트에는 난방비가 절약되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고, 시민들은 자연히 쓰레기 소각장과 친근감이 생겼고, 도심의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도시의 공기가 더 깨끗해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물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홍보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빈의 명소가 됐다.

- 이곳을 견학한 우리 일행은 군정을 이끄는 선구자의 역할과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반대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군민들의 뜻이 한데 모아질 때까지 더욱더 노력해야 겠다는 마음가짐

을 하였으며, 우리군의 쓰레기 소각장이 생각이 났으며, 현재에도 각종 시민단체에서 오염물질(다이옥신 등)이 배출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새삼 느꼈음.



【 비엔나 쓰레기 소각장 】

3. 폴란드(아우슈비츠,크라코우)

가. 견학 개요

- 견학 일자 : 2008. 2. 24 ~ 2. 25(2일간)
- 견학 대상 : 아우슈비츠 수용소, 크라코우 시청, 중앙시장, 소금광산 등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

나. 주요 방문지 및 연수내용

◆ 폴란드(Republic of Poland)

- 수 도 : 바르샤바(Warsaw, 163만명)
- 인 구 : 약 3천 861만명

- 면 적 : 312,683km² (한반도의 1.4배)
- 주요도시 : 바르샤바, 크라코우, 브로츠와프 등
- 주요민족 : 슬라브계 폴란드인(97.6%), 독일계(1.3%), 기타 등(1.1%)
- 주요언어 : 폴란드어가 공통어
- 종 교 : 카톨릭(95%), 기타(5%)

○ 정식 명칭은 폴란드공화국(Republic of Poland)이다. 폴란드는 1952년 헌법에 따라 인민공화국이 되었다가 1976년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는 1989년 9월 자유노조 주도의 마조비에츠키 내각이 출범한 후 단행된 국유기업체의 사유화 추진, 시장경제로의 이행 등으로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에 더하여 1990년 12월 대통령에 취임한 바웬사가 1940년대 이후의 런던 망명정부(폴란드 제2공화국)를 계승하는 제3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는 완전히 소멸 되었으며, 1995년 국민 총선거로 공화국이 탄생 하였다.

○ 폴란드는 아직 동유럽권에서 체코나 헝가리 만큼 개방되어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친밀한 나라가 되었다. 2차세계대전의 뼈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우슈비츠가 있는곳, 쇼팽과 코페르니쿠스, 퀴리부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등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중유럽에 위치하고 있어 독일과 러시아의 열강사이에서 늘 피지배의 역사가운데 있어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산업을 통하여 유

럽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자랑할만한 것은 많겠지만 우선 요한바오로 2세 교황과 제2의 수도라 불리우는 크라코프라는 도시는 멋진 건축물과들과 양식이 많고 고대의 문화가 잘보존되어 있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며, 최근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 EU에 가입한 나라이다.

1) 아우슈비츠 수용소

○ 인류가 저지른 광기의 현장

폴란드 남부 크라코프에서 서쪽으로 50km 지점에 위치한 아우슈비츠는 문명을 배반한 야만의 극치이며 인류가 저지른 가장 잔혹한 행위의 흔적이다.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의 상징인 강제수용소로 잘 알려져 있는 아우슈비츠는 원래 인구 5만 명의 작은 공업도시로, 폴란드어로는 오슈비엥침이라고 한다. 이 도시의 외곽에 있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수용소 안으로 들어서면 순간 생지옥을 만나게 된다. 학살한 시체를 태웠던 소각로, 카펫을 짜기 위해 모아둔 희생자들의 머리카락, 유대인들을 실어 나른 철로, 고문실 등이 끔찍했던 광기의 역사를 전해 주고 있었으며,

○ 4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현장

1940년 봄, 친위대 장관인 하인리히 힘러가 주동이 되어 가시철망과 고압전류가 흐르는 울타리, 기관총이 설치된 감시탑을 갖춘 공포의 강제수용소를 세웠다. 그 해 6월 최초로 폴란드 정치범들이 수용되었고, 1941년 히틀러의 명령으로 대량살해시설로 확대되었으며, 1942년부터 대학살을 시작하였다. 열차로 실려온

사람들 중 쇠약한 사람이나 노인, 어린이들은 곧바로 공동샤워실로 위장한 가스실로 보내 살해되었다. 이처럼 가스, 총살, 고문, 질병, 굶주림, 심지어는 인체실험을 당하여 죽은 사람이 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3분의 2가 유대인이다. 희생자의 유품은 재활용품으로 사용했고, 장신구는 물론 금니까지 뽑아 금괴로 만들었으며, 머리카락을 모아 카펫을 짰다. 뼈는 갈아서 골분비료로까지 썼으니 사람의 몸뚱이 중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 아우슈비츠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1945년 1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나치는 대량학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막사를 불태우고 건물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수용소 건물과 막사의 일부가 남았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 폴란드의회에서는 이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희생자를 위로하는 거대한 국제위령비를 비르케나우에 세웠으며, 수용소 터에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나치의 잔학 행위에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유네스코는 1979년 아우슈비츠를 세계문화유산에 지정하였다.

- 아우슈비츠는 우리 인간의 폭력과 광기를 깊이 생각한 견학의 장소이었다. 수용소 안에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사진촬영은 못하였지만, 글로서 현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시장에 있는 구두, 가방, 배넛저고리, 의수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벽면전체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 경악했다. 가스실로 끌고가기 전에 밀었던 머리카락이다. 게다가 그 머리털로 모피를 짜서 덮었다고

한다. 누리끼리한 모피를 보고 고개가 절로 절레절레 흔들렸다. 이곳에 일본사람들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린 일본과 강대국들에게 아직도 휘둘림을 당하니 분통이 터지고 애국심이 용솨음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지역에는 우리동족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장소인 거창사건 희생자 추모공원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향후 추모공원 관리 방향에 대하여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음.



【 아우슈비츠 수용소 】

2)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 소금 광산 내부에는 180개 이상의 갱이 있고 2,000여 개의 채굴이 끝난 빈 방들이 있으며, 갱도의 연장길이가 총 300km에 이른다. 700년 동안 약 2,600km³의 암염이 채굴되어 폴란드 왕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구실을 했다고 한다. 17세기부터 소금 채굴량이 줄면서 소금광산으로서 의미는 퇴색했으나, 수백 년

채굴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광산 내부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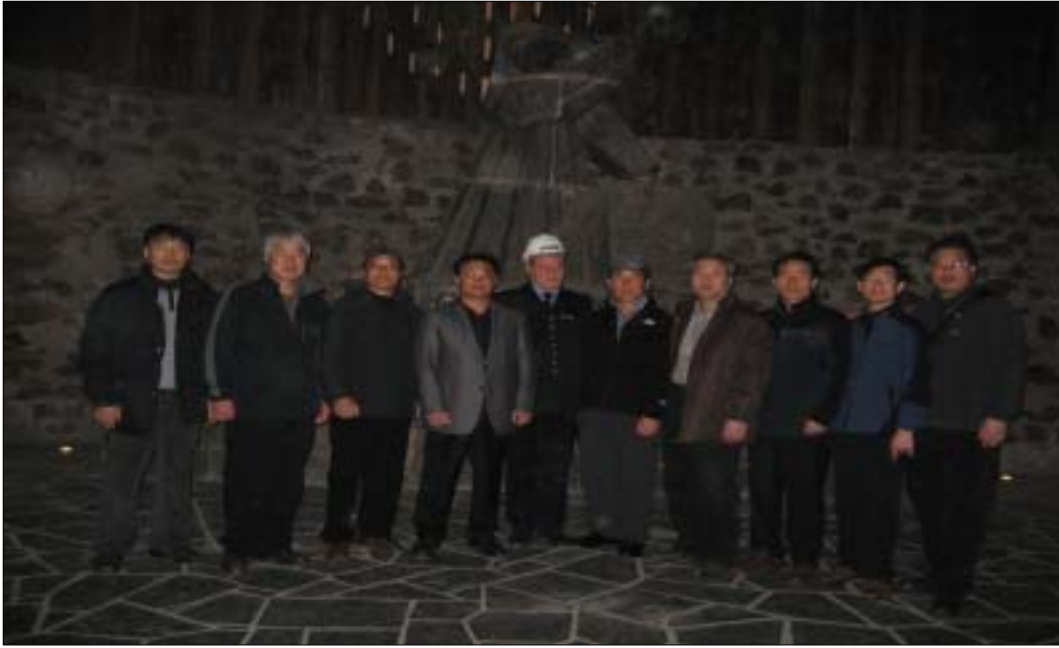
- 소금광산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광산노동자들이 채굴 뒤 남은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서 놀라운 예술작품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빈 공간을 예배당이나 운동장, 성인이나 유명인의 기념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내부에 수많은 조각작품을 남겼다. 모두가 소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광산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 가장 눈길을 끄는 공간은 지하 100m 지점에 있는 ‘축복받은 킹가 교회’라는 예배당이다. 헝가리에서 폴란드로 시집오면서 소금광산을 지참금으로 가져왔다 하여 마을의 수호신처럼 숭배되는 킹가 공주를 위한 공간이다. 길이 55m, 폭 18m, 높이 12m의 공간은 여느 지상의 예배당과 다를 것이 없다. 제단과 촛대는 물론, 성서의 중요 장면들을 묘사한 부조와 기독교 성인들의 조각상까지 갖추고 있었다. 특히 소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샹들리에와 섬세한 부조들은 탄성을 자아낸다. 더구나 음향효과도 뛰어나 콘서트가 개최될 정도라고도 한다.

- 노동자의 수호성인을 기린 성안토니우스 예배당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예배당으로 꼽힌다. 세월이 오래 되었기 때문인지 많이 마모된 성인의 소금상을 볼 수 있었다. 예배당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독특한 방과 조각작품들이 많았다. 1493년 코페르니쿠스의 방문을 기념해서 만든 ‘코페르니쿠스 방’, 킹가

공주의 전설을 새겨놓은 ‘전설의 방’도 있었다. 전설 속의 난쟁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묘사한 난쟁이 조각상, 왕의 조각상 등은 물론 깊이가 9m인 지하 호수도 있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좁은 갱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아름다운 방들과 내부의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조각작품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으며,

- 암염의 치유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1964년에는 지하 211m 지점에 호흡기 질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이 들어섰으며, 130m 깊이에는 광산의 채굴 역사, 기술 발전사, 채굴 도구와 기계, 광산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소금박물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 암염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와 말들은 망아지 때 좁은 굴을 통해 들어와 평생 일하다가 죽으면 토막을 쳐서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광부의 일생이나 말들의 일생이나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인 듯 하였으며, 광산 내부의 계단, 경사진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은 광부가 수없이 많았다고 하였는데 갱내에는 많은 계단이 보였으며, 꼭 죽음의 계단처럼 보였다. 이곳에서 소금의 가치를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한 물건이나 음식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많은 폐석산에 대한 복구 방향과 방치된 폐석산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하였음.



【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

4. 슬로바키아(타트라)

가. 견학 개요

- 견학 일자 : 2008. 2. 25(1일간)
- 견학 대상 : 타트라 국립공원 숙박

나. 주요 방문지 및 연수내용

◆ 슬로바키아(The Slovak Republic)

- 수 도 : 브라티슬라바(Warsaw, 45만명)
- 인 구 : 약 540만명
- 면 적 : 49,035km²
- 주요도시 : 브라티슬라바, 타트라, 코시체 등
- 주요민족 : 슬로바키아인(85.8%), 헝가리인(9.7%), 기타 등(4.5%)
- 주요언어 : 슬로바키아어가 공통어
- 종 교 : 카톨릭(70%), 개신교(11%), 기타(19%)

- 정식명칭은 슬로바키아공화국(The Slovak Republic)이다. 북쪽으로 폴란드, 서쪽으로 체코·오스트리아, 남쪽으로 헝가리,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접한다. 1993년 1월 19일 체코와 함께 UN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2004년 5월 염원해오던 NATO와 EU 가입에 성공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사는 50만 명(전체 인구의 10%)의 헝가리인(人)에 대한 차별 문제로 헝가리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8개주로 되어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패망과 소련의 해방에 따른 공산당 지배 하에서 체코와 함께 사회주의공화국이 되었다가. 1990년 3월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변경한 후, 1993년 1월 1일 체코와의 분리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슬로바키아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독립국가로 평화롭게 공식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타트라 국립공원

- 슬로바키아는 특별히 견학 한 곳은 없었다. 폴란드 크라코우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이곳에서 1박하는 일정이 있었다. 타트라 산맥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맥중 하나다. 총면적의 3/4이 슬로바키아에, 나머지 1/4이 폴란드령에 속한다. 양국에서는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었다. 울창한 침엽수림이 몇해 전 태풍으로 인하여 뿌리채 뽑혀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몇 년전에 태풍이 대단해서 나무들이 뽑히고 산불이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페허와 같은 모습이였다. 태풍이 오기 전 기록사진들을 보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보다 훨씬 울창한 산림을 알수 있었는데 자연보호의 산 교육장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던 곳이다. 이곳에는 저녁에 도착하여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우리 일행은 현지 맥주맛을 보기로 하고 호텔앞 호프집에 갔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어를 아는 일행은 아무도 없었지만 눈치와 몸짓으로 1인당 500cc정도 맥주맛을 보았으며, 가격은 우리나라 1/3정도 되었으며, 종사원들이 하나같이 매우 친절하고 선한 인상이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었다.



【 타트라 국립공원 】

5. 헝가리(부다페스트)

가. 견학 개요

- 견학 일자 : 2008. 2. 26 ~ 2. 27(2일간)
- 견학 대상 : 영웅광장, 국회의사당, 켈페르트 언덕, 어부의 요새, 중앙시장 등 문화 유적지

나. 주요 방문지 및 연수내용

◆ 헝가리(Republic of Hungary)

- 수 도 : 부다페스트(Budapest, 182만명)
- 인 구 : 약 995만명
- 면 적 : 93,030km² (한반도의 2/5)
- 주요도시 : 부다페스트, 패치, 죄르 등
- 주요민족 : 마자르족(92.3%), 기타 등(7.7%)
- 주요언어 : 헝가리어가 공용어
- 종 교 : 카톨릭(52%), 칼빈(16%), 기타(23%)

- 정식 명칭은 헝가리공화국(Republic of Hungary)이다. 헝가리는 9세기에 파노니아 평야에 머저르인들을 이끌고 들어온 아르파트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한다. 성왕 이슈트반 대왕이 1,000년에 헝가리 왕국을 세웠으며, 초기 헝가리의 역사는 폴란드와 보헤미아를 포함한 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헝가리의 황금기는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되고 16세기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의 나머지 땅마저 지배하게 되어 끝이 났다. 17세기 말에는 오스트리아가 헝가리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아래에 있던 헝가리는 1867년 오스트리아와의 타협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자치 왕국으로 승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1918년 10월 31일 헝가리는 독립을 선언했지만 전쟁 전의 영토와 인구의 대부분을 중부 유럽의 신생 독립국들에게 내주었으며,

- 1919년에는 공산 혁명이 일어나 헝가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졌지만 루마니아가 침공해 소비에트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전 오스트리아-헝가리 해군 제독이었던 미클로시 호르티를 집권시켰다. 호르티는 1930년대에 나치 독일의 강요로 동맹 관계를 맺었다. 히틀러는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헝가리를 침공하여 호르티를 나치 협력자로 대체해야 했다. 그 때문에 나치 독일은 호르티는 물론 아들까지도 감금했고, 소련군이 풀어주게 된다.
- 히틀러의 패배 후 소련군이 진주한 헝가리는 다시 공산 정부 아래에 들어갔다. 1956년 헝가리는 반란을 일으켜 바르샤바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헝가리 방공시위). 그러자 소련군이 개입 독자 노선 추구를 이끈 임레너지 총리를 사형시키며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1980년대 말 헝가리는 바르샤바 조약 폐지를 주도하고 다당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며,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헝가리는 서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며 1999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2004년 5월 1일에는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헝가리는 지금까지도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여 2007년에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바 있으며, 대통령은 의회에서 5년마다 선출하며,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총리에게 있는 나라였음.

1) 부다페스트

- 헝가리 평야의 북서부, 도나우강 양안(兩岸)에 걸쳐 있으며, 우안의 부다와 좌안의 페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부다는 대지(臺地)

위에 자리하며, 왕궁(王宮)의 언덕·겔레르트 언덕 등이 강기슭 근처까지 뻗어 있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다. 페스트는 저지에 자리한 상업지역으로, 주변지구에 공장과 집단주택이 들어서 있다. 철도·도로·하천 교통의 요지로 국제공항이 있다. 대표적인 산업은 기계공업이고, 정치의 중심지로서 중앙관공서, 옛 국회의사당 등이 있으며, 그밖에 전통을 자랑하는 음악학교, 국립극장 등을 포함한 많은 극장이 있었다.

- 부다와 페스트는 원래 별개의 도시로 발달하였다고 한다. 부다는 2세기부터 파노니안(Pannonian) 지방의 로마 군(軍) 주둔지 아쿠인쿰으로 알려졌으며, 14세기경부터 부다는 헝가리의 수도가 되고, 페스트도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1872년 부다와 페스트는 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에 인근 소도시를 합병하여 대(大)부다페스트가 탄생 되었고, 현재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헝가리의 수도이다.

2) 영웅광장

- 헝가리에 입국하여 제일 먼저 들른곳이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이었다. 영웅광장에는 천사상과 14명의 영웅들 그리고 좌우에 자리잡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그리고 주위의 중세풍 건물들이 있었다. 영웅광장은 896년 헝가리인들이 카르파티안 트랜실바니아 지역에 정착하였으며, 1,000년 헝가리 왕 성(聖) 스테판 1세가 기독교를 수용하고 국가로써의 모습을 갖추었다. 헝가리가 이 지역에 정착한지 천년이 되던 1896년 이를 경축하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 천사상의 오른손에는 헝가리 신성왕관을 왼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으며, 천사상을 조각한 조르지 절리는 1900년 파리 세계 엑스포에서 그랑프리 상을 받았다고하며, 천사상 아래에 있는 용맹한 표정의 아르파드가 이끄는 7부족장들과 헝가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념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으며, 왼쪽에는 전쟁을 나타내는 전차가, 오른쪽에는 평화를 나타내는 전차가 있었고 좌우에는 14개의 헝가리 왕과 지도자들의 동상이 서 있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 중 부다페스트를 점령하면 전차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진을 친 곳이 영웅광장이라고 하니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광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각 나라들의 대사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대사관 건물도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곳의 느낌은 어딘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시내 분위기가 밝지 않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었다.



【 영웅광장 】

3) 어부의 요새 및 마차시 교회

- 어부의 요새는 전망이 좋아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다. 이름에서 풍겨지듯이 19세기 헝가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때 도나우 강에 살던 어부들이 강을 건너오는 적들을 방어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경계를 선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헝가리풍의 뾰족한 지붕이 얹힌 7개의 탑과 로마네스크, 고딕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회랑이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인들이 치마에 돌맹이를 날라 전쟁에서 대성한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행주산성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 어부의 요새 】

- 어부의 요새 안에 있는 마차시 교회는 13세기 지어진 고딕양식의 교회로 역대 헝가리 왕들의 대관식이 열렸던 곳으로 원래 이름은 성모마리아 성당이였으나, 1470년 마차시 왕의 명령으로

침탑이 증축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정면입구 오른쪽에 80m의 마차시 탑과 35m의 벨러 탑이 솟아 있어 균형이 잡히지 않아 이상하게 보이나 섬세한 조각이 된 고딕 양식의 외관과 선명한 색상의 즐너지제 모자이크 지붕이 조화를 이루어 불가사이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으며, 우리 일행이 갔을 때는 마침 교회 전체를 정비하고 있었으며, 지붕에 있는 마올리카 타일은 즐너지 공방의 스폰서를 받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일행은 역사가 깊은 유물 정비시 국가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이 있는 기업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기업 홍보도 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우리 지역에도 이른 정비 방식을 도입하여 군 예산을 절감도 절감하고 기업도 자연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였음.



【 마차시 교회 】

4) 겔레르트 언덕

-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있는 언덕으로 우리나라 서울의

남산과 비슷한 곳이며, 해발고도 235m. 부다 지구의 도나우 강변에 있으며, 언덕 바로 북쪽에 있는 옛 왕성의 유적과, 도나우 강(江) 동쪽 기슭에 펼쳐진 페스트 지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뛰어난 곳으로 왼쪽에는 구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다지구가 오른쪽에는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페스트 지구가 있으며, 페스트 지구에 96m 높이의 두 건물이 눈에 띄는데 바로 국회의사당과 성이슈트반 교회가 그것이다. 1896년 헝가리가 건국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96m 높이로 두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고도제한을 걸어서 더 높은 건물이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 19세기 중엽 당시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제국이 지배를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저항하는 부다페스트 시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든 요새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케렌 언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11세기에 이 언덕에서 전사한 성(聖)겔레르트를 기리기 위해 개칭하였다고 하며, 정상에는 19세기에 쌓은 오스트리아의 성터와 1945년 부다페스트 해방을 기념하는 해방기념상(像)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로 세운 여신상이 있었으며, 요새의 벽면에는 10년 단위로 부다페스트의 옛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걸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우리일행의 느낀점은 거창의 옛모습들 사진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의 옛모습 사진을 거창박물관의 벽면에 전시하여 누구나 옛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창을 좀더 깊이있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음.



【 겔레르트 언덕 】

5)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중앙시장이라고 해서 큰기대감을 가지고 도착한 중앙시장은 신기하고 볼거리 가득한 재래시장일 것이라는 예상을 초월하여 지붕을 갖춘 실내 재래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웬지 모르게 우리나라의 시장 만큼 활기를 찾아 볼수는 없었다. 형태는 시장이라고 하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으며, 시장에서조차 옛 사회주의 정적이 깊게 스며 있는 듯 시장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층에서는 주로 식료품과 과일, 정육점이 2층에는 기념품과 옷, 자수, 식당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 이번 견학의 일정중 마지막 코스로 계획된 한 나라의 수도 중앙시장을 견학 한다고하여 토종음식도 맛을보고 귀국시 선물도 구입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도착하여 한곳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많은 시간을 가지고 둘러 보았으나, 마음에 쏙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여 휴식자리를 찾던 중 마침 생맥주 가게가 있어 일행중 몇몇이 생맥주 300cc 씩을 먹으면서 견학소감이 기대감에 못미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결과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개방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으며, 중앙시장은 단순한 시장기능을 넘어 헝가리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광명소와 헝가리가 주력상품으로 생산해 내는 모든 종류의 파프리카를 볼 수 있었으며, 살아있는 파프리카 박물관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

Ⅲ. 맺는말

- 이상으로 10박11일의 연수 기간이지만 체코(프라하, 체스키크롬로프)의 프라하 시의회, 프라하성, 성 비트 성당, 구시가 광장, 황금소로, 카를교, 구 시청사와 천문시계, 바즐라프 광장, 체스키크롬로프 등 체코의

고대 유적지 등, 오스트리아(비엔나)의 호엔쾰츠부르크성, 모차르트 생가 및 간판의 거리, 미라벨 궁전 및 정원, 쾰츠캄머굿 및 할슈타트, 할슈타트 오물처리장, 비엔나 8구 의회, 쉐부른 궁전 및 정원, 케른트너거리, 성 슈테판 성당, 시청사, 국회의사당, 비엔나 쓰레기 소각장 등 오스트리아의 고대 유적지 및 문화유산과 폴란드(아우슈비츠, 크라코우)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 슬로바키아(타트라) 타트라 국립공원, 헝가리(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 어부의 요새 및 마차시 교회, 겔레르트 언덕, 중앙시장 등의 현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일행들이 배우고 느낀 사항은 참으로 많았다.

- 이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의 문화유산이나 특이한 부분을 중심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음.

□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 문화유적 보존 관리사항

-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적도시 프라하(체코), 비엔나(오스트리아), 헝가리(부다페스트)는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과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의 성(城), 성당(聖堂), 인물(성인, 음악가), 건축물 등 1,000년 이상된 고대의 유적과 유물로 관광하기에 특수한 조건의 도시였으며, 건축물의 경우 몇백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 특히 고대의 고풍미 있는 건물과 주변 관광환경 보존을 위해 건축고도 제한 정책을 펴고 있었고, 주요 도로와 관광유적지 주변 도로를 관광지와 잘 어우러진 석재(화강석)로 시공하여 오랜 기

간동안 보존이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몇백년은 더 보존될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광자원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었음.

-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있는 시설물(건물, 문화적 유물, 관광지)은 우리군의 특산물인 화강석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화강석 도시답게 도시미관을 화강석으로 시공하여 오랜 기간동안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관광 문화유적(유물)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유산 관리 정책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필요 하였음.
- 또한 우리지역과 비슷한 분위기의 문화유산은 첫째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역대 유명 왕들, 성인들, 모짜르트,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바오로 2세 등)들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이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지역에도 우리지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인물과 한국의 인물을 찾아내서 세계인들의 관심사항을 유발할수 있는 소재를 우선 찾아야 될것으로 생각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 천왕의 고향이 가조라는 것도 좋은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둘째 오랜 역사를 지닌 유물과 유적지였다. 우리지역에도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예를들면 복원이 시급한 거열산성이나, 덕유산 아래의 옛 대사찰들 그리고 고가마을, 고택 등과 거창을 소재로한 예술작품들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으며,
- 특히 비극의 현장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슷한 비극의 현

장인 거창사건 희생자 추모공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비극의 내용을 많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군정시책이 필요하였으며, 이제라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도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야겠고,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을 견학하고 우리지역의 많은 폐석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대형 조각공원이나, 동굴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하였으며,

- 이번 연수를 통하여 보고 얻은 지식을 바로 군정에 접목시키기에는 우리지역의 여건상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마차시 교회의 유적을 정비하는데 해당 제품을 만드는 민간기업의 스폰서를 참여 시키므로 기업에서는 상품 홍보를 하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므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방안은 우리군의 군정에 도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번 동유럽 5개국 해외 연수를 통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또한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끝으로, 지난 10박 11일 동안 동유럽 5개국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번 연수를 무사히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